

## 태국서 에이즈 백신 3단계 임상실험

미국의 백신 제조회사가 개발한 에이즈 백신 에이즈백스(AIDS VAX)에 대한 3단계 임상실험이 태국에서 2천500명의 마약상습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 임상실험은 방콕의 17개 마약 재활센터에서 앞으로 3년에 걸쳐 실시되며 첫날인 3월 24일에는 6명에게 백신이 투여됐다. 첫 결과는 약 30개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는 지금 약 30여종류의 에이즈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 임상실험까지 이른 것은 에이즈백스 하나뿐이다.

에이즈백스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1단계 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임상실험에서 다같이 항체를 발생시켰다.

마지막 3단계의 대규모 임상실험에서는 이 백신이 HIV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하게 된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정맥주사로 투입하는 마약상습자들이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 임상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방콕광역시는 참가자중 실험기간중에

HIV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은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백신은 일반 백신들과는 달리 살아있는 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HIV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장차의 HIV 감염을 예방해 주기 위한 것이지 에이즈 치료용은 아니다.

이 백신은 특별히 HIV 중 B변종과 E변종을 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중 E변종은 동성애자들 사이에 잘 감염되는 것으로 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에이즈백스의 3단계 임상실험은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중이지만 이 백신은 태국에서 사용되는 백신과 다르다.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HIV는 그 종류가 또 다르기 때문이다.

볼티모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총 53개 클리닉, 대학병원, 메디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실험에는 지금까지 모두 1천500백명의 지원자가 등록했으며 급년 여름까지는 지원자가 5천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콕 APAFP=연합)

이 이룩됐다.

미국 애틀랜타 여키스 프라이빗 센터의 미생물 및 면역학 연구실의 해러엇 로빈슨 박사는 HIV와 SIV(원숭이

에 감염되는 HIV)의 무해한 혼합물인 SHIV로 만든 HIV 백신을 개발했다고 과학잡지 네이처 메디신에서 밝혔다.

로빈슨 박사는 SHIV 백신을 원숭이의 피부속에 3차례 주입한 결과 62주동안 바이러스를 피속에서 발견될 수 없는 수준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이즈 백신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실험은 "바이러스 복제를 크게 줄여 에이즈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AFP=연합)

## 아르메니아 새 치료제 개발 주장

아르메니아에서 획기적인 에이즈 치료약이 개발돼 약효진위 여부에 대한 국제적 검정을 받고 있다.

세르즈 사르키샨 아르메니아 내부 장관은 최근 아르메니아에서 에이즈를 100% 완치할 수 있는 치료약 '아르메니콤'을 개발했으며 13명의 환자에게 약을 투여한 결과 모두 완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약을 개발한 과학자나 연구소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현재 내무부 산하 특수요원들이 에이즈 치료약 개발 과학자들의 신병과 제조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는 조만간 이 에이즈 치료약 개발에 대해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아르메니아의 에이즈 신약에 대한 소문은 삼시간에 퍼져, 미국의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이 치료를 위해 현재

## 에이즈 전염 방지 백신 실험 성공

원숭이의 에이즈 바이러스 전염을 막아줄 수 있는 DNA 백신 실험에 성공해 인체 에이즈 치료에 새로운 진전

아르메니아측과 방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연합)

## 새 에이즈 치료제 '에이지너라제'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갖는 새로운 약품을 승인했다.

이 치료제는 글락소 웰컴 제약회사가 개발한 '에이지너라제' (Agenerase)란 이름의 단백질 분해 억제제로 항바이러스성 약물과 함께 투여할 경우 에이즈 치료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치료제는 글락소사가 1천 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4주동안 항바이러스성 약물과 병행 투여한 결과 에이즈를 발생시키는 HIV의 수준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에이지너라제는 또 다른 단백질 분해 억제제와는 달리 혈중지방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글락소사는 밝혔다. FDA가 이러한 에이즈 치료제를 승인하기는 2년여만인 것으로 글락소사는 기존의 치료제와는 달리 하루 두 번 복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

## 에이즈감염-발병속도 유전자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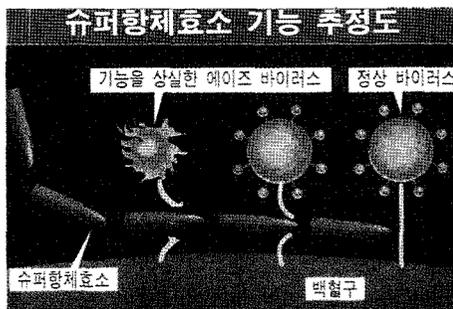
HIV에 감염된 사람들중 어떤 사람은 빨리 발병하고 어떤 사람은 발병시기가 늦어지면서 여러해 동안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면역체계의 일부인 HLA-1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메리 캐링턴 박사는 HLA-1 유전자의 구성이 HIV 감염후 발병시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캐링턴 박사는 HLA-1 유전자는 A, B, C의 3가지가 있으며 이 유전자의

구성형태는 모두 6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에서 한쌍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로 구성돼 있는 사람일수록 에이즈로의 진행에 강한 저항력을 나타냈다는 것. (워싱턴 AP=연합)

## 에이즈 무력화 슈퍼항체 발견



인체의 백혈구와 결합하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족수형」단백질(항원)을 파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슈퍼 항체효소」가 일본 히로시마(廣島) 현립대학 우다 다이조(宇田泰三) 교수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연구팀은 쥐를 이용해 「슈퍼 항체효소」를 만들어 냈으며 항체효소 하나가 300개의 항원을 파괴한 실험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항체효소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 텍사스의 대수빌 폴코수는 『에이즈치료제 개발을 향한 획기적인 발견』이라며 「암이나 심장병에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이즈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단백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아미노산배열을 자주 바꾸는데, 이 때문에 발병을 억제할 결정적인 항체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점이 그동안 에이즈 치료의 최대 난점이었다.

연구팀은 에이즈 바이러스로부터 흡수처럼 빨어나와 백혈구와 결합하는 단백질 가운데 일부는 아미노산 배열이 언제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아미노산 배열에 대한 항체는 과거부터 쥐를 이용해 만들어 내는 방법이 확보돼 있었으며 연구팀은 이 항체를 무거운 분자와 가벼운 분자로 분리, 보다 활동적인 가벼운 분자만을 추출했다.

실험관 안에서 이들 에이즈바이러스의 족수형 단백질과 섞어 관찰한 결과 강력한 파괴효과를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수신회의 실험에서 이 항체효소는 마치 미사일처럼 차례차례 항원을 파괴, 「슈퍼 항체효소」로 명명됐다. (한국일보 '99/03/24)

## 여성용 영구피임 코일 개발 성공

10~15분이면 장치할 수 있는 여성용 영구피임 코일에 대한 첫 임상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호주의 A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영구피임 코일은 미국의 콘셉터스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 절개나 전신 마취없이 자궁경(子宮頸)을 이용, 여성의 나팔관에 밀어넣어 나팔관 입구를 차단함으로써 정자가 들어올 수 없게 한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스톱(STOP)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피임 코일은 스크루처럼 생긴 것으로 직경이 1mm가 채 안되고 길이는 약 2.5cm로 최첨단 특수속속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피임기구인 자궁내강치(IUD)보다 크기가 50배나 작다. (캘버라 신화dpa=연합)

## 21세기 3대 위협 에이즈·물부족·식량난

「냉전이 끝난 21세기의 가장 큰 재앙은 에이즈(AIDS)」 세계적 환경단체인 월드위치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1세기 인류가 맞게 될 3가지 위협으로 에이즈와 물부족, 식량난을 꼽고 이



가운데 에이즈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멜서스를 넘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다음 세기중 아프리카 인구의 5분의 1이상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일보 '00/04/12)

## 여성도 '칭바지시위' 동참 '강간 불가' '법원판결 항의' 속속합류

「칭바지를 입은 여성은 강간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탈리아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여성운동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여성단체들은 이 판결에 항의하기 위한 전세계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의를 위해 칭바지를 입는 날」을 선언. 「칭바지 입기」항의시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2월 「칭바지는 그 바지를 입은 여성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벗겨질 수 없다」며 칭바지 강간 불가 판결을 내려 국내의 여성들의 거센 비난을 초래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

## 캄보디아 에이즈 감염률 아시아 최고

캄보디아는 어느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에이즈 감염률이 높으며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보는 위기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계획이 시급하다고 유엔에이즈계획이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이 계획의 피터 파이엇 국장은 캄보디아의 첫 에이즈회의 개막 전날 캄보디아는 현재 1

천 140만 인구 가운데 약 18만명이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이며 "이는 전국의 성인 중 약 3~4%가 감염자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이엇 국장은 캄보디아 창녀의 약 40%가 HIV 감염자이며 자주 매음굴을 찾는 군인과 경찰관들 사이에 특히 감염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방콕=연합)

## 미성교육 선구자는 마돈나와 헤프너



마돈나



매시존슨

미국인들은 지난 35년간 성(性)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팝가수 마돈나와 월간 '플레이보이' 발행인 휴 헤프너를 뽑았다고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SIECUS)가

발표.

창립 35주년을 맞은 SIECUS는 자체 웹사이트에 접속한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미국인들로 하여금 성을 자연스럽게 견강한 삶의 일부로 이해하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인물 10명을 선정하라'는 주문과 함께 1백명의 명단을 제시한 결과 마돈나와 헤프너 외에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공개한 농구스타 매시 존슨과 농성에 연인을 공개한 여배우 엘렌 디제네리스, 성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한 부스 웨스

트하이머 박사가 상위원에 뽑혔다.  
(로스엔젤레스=연합)

### 상하이대학들 에이즈예방 필수과목

상하이(上海) 시당국이 후천성면역 결핍증(AIDS)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의 15개 대학이 '에이즈 예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 학생들에게 심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보도. 통신은 "이런 조치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에이즈에 관한 기본 지식이 너무나 결여돼 있다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강의를 듣는 것 외에도 독서, 강좌 및 세미나 참석, 에이즈 예방 비디오 시청을 권유받고 있다"고 소개. (베이징 AFP=연합)

### 유전자가 에이즈발병 앞당길 수도

Stephen J. O'Brien 박사는 'Science'(282:1907-1910, 1998)지에 HIV에 감염된 환자의 일부는 다른 환자보다도 빠르고 완전한 에이즈를 발병하는 유전적 소인을 가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박사팀은 HIV 감염 후 3년내 에이즈로 발병하는 환자는 CCR5유전자의 프로모터영역에 유전자변이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인중 이 유전자변이를 가진 사람은 7~13%로 추정되는데, 3년반 이내에 에이즈로 발병하는 환자에서는 10~17%가 이 유전자변이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박사팀은 HIV에 감염돼 4~6년이 지나면 이 유전자변이와 에이즈발병의 관계는 뚜

렷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박사팀은 2,603례의 에이즈환자를 대상으로 검토해 이 지견을 이끌어냈으며 그 환자 중에는 19년간이나 추적 조사된 환자도 있다. (뉴욕=연합)

### 프랑스 에이즈혈액사건 1명 유죄 전 보건장관 기소 전 총리-사회장관은 무죄

프랑스의 공화국 법정(CJR)은 에이즈 혈액오염 스캔들 재판을 마치고 로랑 파비우스 전 총리 및 조르지나 뒤루아 전 사회장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에드몽 에르베 전 보건담당 국무장관은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일과 관련, 기소됐다.

프랑스 제5공화국 40여년 역사상 전직 각료가 범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은 전직 각료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과 오가 청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들 전직 각료는 지난 81~85년 제임중 HIV에 오염된 혈액이 혈우병 환자 등 4천여명에게 공급돼 이중 6백여명이 사망한 일과 관련,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프랑스의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개발중이던 에이즈 시약을 기다리느라 이미 개발됐던 미국 제품의 사용을 거부, 결과적으로 에이즈 감염자 수를 늘어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파리=연합)

### '콘돔 장난감' 제조사대표 입건

콘돔에 분을 넣어, 초등학생들에게 '미끌이'라는 이름의 장난감으로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3·S완구 대표) 등 10명이 4월 13일 아동복지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기 고양시 등지에 공장용 차려 놓고 부허가로 제작한 콘돔에 분과 식용색소를 넣어 만든 '미끌이' 7만 6천여개를 만들어 개당 1백70원을 받고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점에 팔아온 혐의. (동아일보 '99/04/14)

### 강원도 에이즈 감염자 14명

#### 관리중 전원 남성

강원도는 지난 89년 처음으로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한 이후 현재 18시·군 가운데 8개 시·군에서 모두 14명의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98년 12월말 현재 전국 876명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중인 감염자 전원이 남자이며 부부감염이나 동거인에 의해 감염된 사례와 노자감염은 없다고 밝혔다.

또 감염자 전원이 성접촉(해외경험 5명, 동성연애 7명, 국내 경험 2명)에 의해 감염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명, 10대와 50대가 각각 1명씩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원 3명, 회사원 2명이고 복수와 학생, 자영업자가 각각 1명씩이다. (춘천=연합) A